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차 모의평가 문제지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필적 확인란 문구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국어잘하는집 이상국어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할아버지께 아버지 소식을 전하면서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라고 말했다가 어색하다는 말씀을 들은 경험 말이에요. (청중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자) 생각보다 많네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무엇이 어색했는지 궁금해서 문법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높임 표현은 누구를 고려하여 결정될까?’라는 물음을 중심으로 제가 알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누구를 높이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문장 밖에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있고, 문장 안에는 주어로나타나는 주체와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는 객체가 있지요. 주체를 높일 때는 선어말 어미 ‘-(으)시-’를 쓰고,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출 때는 종결 어미를 골라 쓰며, 객체를 높일 때는 ‘드리다’, ‘모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문법서를 읽으며 가장 놀란 점은, 높일지 말지가 높임의 대상한 사람만 보고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의 첫 문장을 보시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 말하는 이에게 아버지는 분명 높여야 할 분이지만, 듣는 이인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더 높기 때문에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를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자의 아들에게 ‘너의 아버지 돌아오셨니?’라고 묻는 경우인데요, 선생님에게 제자는 높일 대상이 아니지만 듣는 이인 아이의 처지에서는 높여야 할 분이므로 ‘-시-’를 쓴 것입니다. 결국 주체를 높일지는 말하는 이, 듣는 이, 주체 사이의 관계를 함께 따져 결정되는 셈이지요. 객체를 높이는 어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듣는 이가 객체보다 높다면 ‘할아버지, 형이 아버지한테 뭐가 주었습니다.’처럼 ‘드리다’ 대신 ‘주다’를 쓸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다만 듣는 이를 대우하여 듣는 이 편의 객체를 높여 주는 말은 가족 안에서는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것을 너희 아버지께 갖다 드리라.’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요.

(화면을 넘기며) 높임 표현은 이런 관계의 규범만으로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과장님은 직장이 가까워서 편하시겠어요.’와 ‘과장님은 직장이 가까워서 편하시겠어요.’를 비교해 보세요. ‘할아버지는 수염이 많으시다.’의 ‘수염’처럼 높일 대상의 신체 일부나 소유물을 나타내는 말이 주어일 때는 ‘-시-’를 빼면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직장’은 반드시 ‘-시-’를 동반해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두 번째 문장에서 ‘가깝다’에 ‘-시-’를 쓴 것은, 말하는 이가 직장이 가깝다는 사실을 과장님의 생활과 깊이 관계된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즉 ‘-시-’는 나이나 지위에 따른 격식을 넘어, 대상에 대한 말하는 이의 관심과 친밀감까지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높임 표현은 한 사람이 아니라 대화에 관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그 속의 높임 표현이 어

떻게 선택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 중간에 청중의 질문을 받아 답하며 발표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 ②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 뒤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발표의 화제를 도입하고 있다.
- ③ 발표 내용을 정리한 뒤, 청중이 발표 내용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④ 참고한 문법서의 저자와 출판 연도를 밝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상반된 두 견해를 제시한 뒤 한쪽 견해를 지지하는 근거를 보충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1: 압존법이 듣는 이를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으니, 회사에서 사장님께 부장님에 관해 말할 때도 압존법을 써야 하는지 궁금해졌어. 발표에서 압존법은 가족 사이의 예로만 설명했으니 따로 찾아봐야겠어.

학생 2: 지난 명절에 큰아버지께 “아버지께서 금방 오신대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발표를 듣고 보니 그때 듣는 이와 아버지의 관계도 따져 봐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

학생 3: ‘-시-’가 대상에 대한 친밀감까지 드러낼 수 있다는 설명이 흥미로웠어. 뉴스에서 대통령을 언급할 때 ‘-시-’를 쓰지 않는 까닭도 이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에 비추어 자신의 과거 언어 사용을 되돌아보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언급한 ‘-시-’의 기능을 다른 언어 사용 상황으로 확장하여 이해하려 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제시된 내용을 발표에 나오지 않은 상황과 관련짓고 있다.
 - ⑤ 학생 2는 학생 1과 달리, 발표에서 다룬 사례를 자신의 경험에 적용하여 발표 내용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3.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 (손녀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엄마가 이따가 할머니 댁에 간대요.
 ㉡ (교장 선생님이 신입 교사의 딸에게) 너희 어머니 지금 학교에 계시니?
 ㉢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삼촌이 아버지께 책을 드렸어요.
 ㉣ (직원이 동료에게) 사장님은 회사가 멀어서 출근이 힘들시겠어요.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 약을 아버지한테 갖다 주어라.

- ① ㉠에서 '엄마'를 높이지 않은 것은, 말하는 이에게는 높일 대상이라도 듣는 이가 그보다 더 높기 때문이겠군.
 ② ㉡에서 '-시-'를 쓴 것은, 말하는 이가 '어머니'를 자신보다 존귀한 인물로 여기기 때문이겠군.
 ③ ㉢에서 '드려다'를 쓴 것은, 듣는 이가 객체보다 존귀하기 때문이겠군.
 ④ ㉣에서 '멀어서'에 '-시-'를 쓰지 않은 것은 높임법에 어긋나므로 '머서서'로 고쳐 써야 하겠군.
 ⑤ ㉤는 가족 안에서 듣는 이를 대우하여 듣는 이 편의 객체를 높여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겠군.

[4~6] 다음은 학교 측과 업체 측의 협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교 측: 오늘은 급식실 음식물 처리기 도입의 세부 조건을 정하려고 모였습니다. 보내 주신 제안서는 검토했습니다만, 예산이 정해져 있어 몇 가지 조율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업체 측: 저희는 하루 100kg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생물 분해식 처리기를 제안드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미생물이 분해해 부피를 90% 이상 줄여 주기 때문에 수거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장비 구입과 설치를 합쳐 2,400만 원입니다.

학교 측: 올해 확보한 예산이 1,500만 원뿐이라 한 번에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업체 측: 구입이 부담되신다면 임대 방식도 있습니다. 5년 약정에 월 50만 원이고, 이 금액에는 정기 점검과 미생물 보충이 포함됩니다. [A]

학교 측: 임대라면 당장의 부담은 덜겠군요. 그런데 방학 동안에는 급식이 없어 처리기를 쓰지 않습니다. 1년 중 석 달은 쓰지 않는 기계에 임대료를 똑같이 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체 측: 미생물은 먹이가 끊기면 죽기 때문에, 방학 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관리 인력이 방문해 미생물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방학 기간에는 방문 횟수에 맞추어 월 20만 원만 받는 것은 어떨까요? [B]

학교 측: 좋습니다. 그 조건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처리기에 문제가 생기면 기사님이 오시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급식실은 하루라도 처리기가 멈추면 곤란합니다.

업체 측: 보통 신고를 받고 이틀 안에 방문합니다.

학교 측: 이틀은 너무 길니다. 고장 신고 후 24시간 안에 방문해 주시고, 그러지 못하면 그 기간의 임대료를 깎아 주신다는 조건을 계약에 넣었으면 합니다. [C]

업체 측: 24시간 안에 방문하려면 저희도 인력을 따로 배치해야 해서 부담이 큼니다. 다만 처리기의 하루 투입량과 감량률 자료를 저희가 홍보에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D]

학교 측: 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면 문제없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설치 장소는 급식실 뒤편 창고로 생각하고 있는데, 따로 필요한 설비가 있을까요?

업체 측: 처리 과정에서 물이 생기기 때문에 배수구가 있어야 하고, 처리기에 맞는 전기 설비가 필요합니다. 창고에 배수구가 있나요?

학교 측: 배수구는 있습니다만, 전기 설비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전기 공사가 필요하다면 비용은 어느 쪽이 부담하나요?

업체 측: 전기 공사는 건물에 관한 공사라서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맡으셔야 합니다. 15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학교 측: 그렇다면 전기 설비를 먼저 확인한 뒤에 설치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합의한 내용을 정리해 계약서 초안을 보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E]

4. 위 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교 측은 확보한 예산을 근거로 들어 장비를 한 번에 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② 업체 측은 방학 기간의 임대료를 받지 말아 달라는 요구에 대해, 미생물 관리의 필요성을 들어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③ 학교 측은 고장 시 방문 시간을 줄여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대료를 깎아 주는 조건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업체 측은 방문 시간에 관한 학교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처리기 사용 자료의 활용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⑤ 학교 측은 전기 공사 비용을 부담할 주체를 확인한 뒤, 설치 일정을 정하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협상에서는 상대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기보다 ㉠ 상대가 요구하는 바의 일부를 수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자신에게 필요한 조건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 또 ㉢ 상대가 제시한 조건 중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논의의 범위를 좁히기도 한다.

- ① [A]에서 업체 측은 학교 측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 ㉢를 활용하고 있다.

- ② [B]에서 업체 측은 학교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자신에게 필요한 조건을 덧붙여 ⑥를 활용하고 있다.
- ③ [C]에서 학교 측은 업체 측이 제시한 수정안의 일부를 받아들여 ④를 활용하고 있다.
- ④ [D]에서 업체 측은 학교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자료 활용이라는 조건을 덧붙이고, 그 조건에 대해 상대가 우려할 만한 점의 대책을 함께 밝히며 ⑥를 활용하고 있다.
- ⑤ [E]에서 학교 측은 업체 측이 예상한 공사 비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로 규정하여 ③를 활용하고 있다.
6. 다음은 협상 후 업체 측이 보낸 계약서 초안의 일부이다. ㉠~㉣ 중 협상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음식물 처리기 임대 계약서(초안)

제1조(목적) 갑(학교)은 을(업체)로부터 미생물 분해식 음식물 처리기(1일 처리량 100kg) 1대를 임대한다.

제2조(기간 및 임대료) ㉠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임대료는 월 50만 원으로 한다. ㉡ 다만 갑의 방학 기간에는 임대료를 월 20만 원으로 하되, 이 기간에는 을이 처리기 점검과 미생물 관리를 하지 아니한다.

제3조(관리) ㉢ 을은 정기 점검과 미생물 보충을 임대료의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제4조(고장 대응) ㉣ 을은 갑의 고장 신고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방문하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감액한다.

제5조(자료 활용) ㉤ 갑은 을이 처리기의 하루 투입량과 감량률 자료를 홍보에 활용하는 것을 허락하며, 을은 이때 갑의 명칭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7.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ㄱ~ㅁ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절대적 시제와, 주문장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상대적 시제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시제는 주로 종결형에서, 상대적 시제는 관형사형과 연결형에서 비교적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시제 형태는 시간 외의 의미를 함께 나타내기도 한다. ‘앓다’, ‘서다’처럼 결과성을 띤 동사에 ‘-었-’이 결합하면 동작이 끝나 그 결과가 눈앞에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의 ‘-었-’은 ‘-어 있-’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또 ‘-겠-’은 미래의 일뿐 아니라 현재나 과거의 일을 추측할 때에도 쓰인다.

회상의 ‘-더-’는 말하는 이가 과거에 경험한 일을 떠올릴 때 쓰이는데, 앞에 ‘-었-’이 오면 경험 당시의 과거를, 오지 않으면 경험 당시의 현재를 나타낸다. 종결형에서는 주어가 말하는 이 자신일 때 ‘-더-’가 잘 쓰이지 않지만, 관형사형 ‘-던’은 주어가 말하는 이 자신일 때에도 쓰일 수 있다.

- ㄱ. 어제 나는 책을 읽는 동생을 보았다.
- ㄴ. 영화는 지금 의자에 앉았다.
- ㄷ. 내가 어릴 때 살던 집이 아직 남아 있다.
- ㄹ. 형은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
- ㅁ. 지금쯤은 부산에도 비가 오겠다.

- ① ㄱ의 ‘읽는’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이지만, 주문장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로 해석된다.
- ② ㄴ의 ‘앉았다’는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므로 ‘앉아 있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③ ㄷ의 ‘살던’은 주어가 말하는 이 자신이므로 ‘-더-’가 쓰일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 ④ ㄹ의 ‘공부하더라’를 ‘공부했더라’로 바꾸면 경험 당시의 현재를 나타내게 된다.
- ⑤ ㅁ의 ‘-겠-’은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임을 나타내는 미래 시제로 쓰였다.
8. <보기>의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학습 자료] 16세기 문헌인 『소학언해』에는 15세기 국어와 달라진 모습이 나타난다.

ㄱ. 명사형 어미가 ‘-음/-음’ 외에 ‘-ㅁ’으로도 실현된다.

ㄴ. 관형사형에서 선어말 어미 ‘-오-’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ㄷ. ‘△’이 소실된다.

ㄹ. 체언과 조사를 나누어 적거나, 끝소리를 거둬 적는 표기가 나타난다.

ㅁ. 선어말 어미와 다른 어미가 결합하는 순서가 달라지기도 한다.

- ㉠ ㄱㄹ치물 세미니 [가르침을 세웁이니]
 ㉡ 이러트지 흐면 나흔 즈식이 얼굴이 단정흐며 [이렇듯이 하면 낳은 자식이 모습이 단정하며]
 ㉢ 마온애 비르소 벼슬하야 [마흔애 비로소 벼슬하여]
 ㉣ 돛찌 정터 아니커든 안찌 아니흐며 [자리가 바르지 아니 하거든 앉지 아니하며]
 ㉤ 달고 다아 묻는 양 흐시거늘 [달구질을 하여 묻는 양 하 시거늘]

- ① ㉠의 ‘세미니’에서 명사형 어미가 ‘-ㅁ’으로 실현된 것을 통해 ㄱ을 확인할 수 있군.
 ② ㉡의 ‘나흔’이 15세기 문헌에서는 ‘나흔’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를 통해 ㄴ을 확인할 수 있군.
 ③ ㉢의 ‘마온애’는 15세기의 ‘마순’과 비교하면 ㄷ을 보여 주며, 체언과 조사를 나누어 적었다는 점에서 ㄹ도 보여 주는군.
 ④ ㉣의 ‘돛찌’는 ‘돛’에 조사 ‘-이’가 결합한 말로, ‘돛’의 끝소리를 거둬 적었다는 점에서 ㄹ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의 ‘흐시거늘’에서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거-’와 ‘-늘’ 사이에 놓여 있으므로, 15세기의 결합 순서가 그대로 유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9. <보기>의 ㉠~㉤에 들어갈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선생님: 용언이 활용할 때 음운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탈락하는 음운이 자음인지 모음인지, 그리고 탈락한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단,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이 되거나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 그리고 불규칙 활용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아요.

구분	표기에 반영됨	표기에 반영되지 않음
자음 탈락	㉠	㉡
모음 탈락	㉢	—

	㉠	㉡	㉢
①	줄- + -는 → 조는 [조:코]	줄- + -고 → 크- + -어서 → 커서	
②	싫- + -어 → [시러]	싫- + -으니 → 서- + -어서 → 서서	
③	울- + -니 → 우니 [끄러]	건너- + -어서 → 건너서	
④	갈- + -ㄴ → 간 [노아]	보- + -아서 → [봐:서]	
⑤	묻- + -어 → 물어 [나온]	들르- + -어 → 들러	

10.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자료 1] 두 말이 어울릴 때에는 일반적인 단어의 배열에서 보기 어려운 소리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 앞말의 끝소리 ‘ㄹ’이 ‘ㄴ, ㄷ, ㅅ, ㅈ’ 앞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 앞말의 끝소리 ‘ㄹ’이 ‘ㄷ’으로 바뀌기도 하며, ㉢ ‘ㅂ’이나 ‘ㅎ’이 덧나기도 한다. 그런데 ㉣의 일부는 중세 국어를 고려하면 덧난 소리라 하기 어렵다. 중세 국어에서 ‘쌀’은 첫소리에 ‘ㅂ’을 가진 ‘쁠’이었고, ‘안’은 끝소리에 ‘ㅎ’을 가진 ‘안ㅎ’이 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머리카락’은 ‘머리’와 ‘가락’ 사이에 ‘ㅎ’이 덧난 것이다. 이러한 소리의 변화는 합성어뿐 아니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가령 ‘암개’, ‘수탉’의 ‘암-’, ‘수-’는 현대 국어에서 접두사로 쓰인다.

[자료 2] 한글 맞춤법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의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예) 다달이, 마소, 소나무, 짜전, 화살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의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예) 반질고리, 설달, 술가락, 이튿날, 설푸르다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예) 좁쌀, 햅쌀, 머리카락, 안팎, 암탉

- ① ‘소나무’와 ‘짜전’은 모두 ㉡가 일어난 말로, ‘ㄹ’을 적지 않는 것은 제28항에 따른 것이겠군.
 ② ‘설패’와 ‘술가락’은 모두 ㉢가 일어난 말로, 앞말 ‘설패’의 끝소리 ‘ㄹ’이 ‘ㄷ’으로 바뀐 것을 적은 것이겠군.
 ③ ‘좁쌀’과 ‘햅쌀’에 ‘ㅂ’이 나타나는 것은 중세 국어 ‘쁠’의 첫소리가 남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④ ‘머리카락’의 ‘ㄷ’은 ‘안팎’의 ‘ㅍ’과 마찬가지로, 앞말이 중세 국어에서 끝소리 ‘ㅎ’을 가지고 있었던 흔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⑤ ‘암탉’은 제31항의 예에 해당하면서, ㉣가 접사가 결합한 말에서도 나타남을 보여 주는 예이겠군.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가가 다루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므로 관찰할 수 없다. 역사가에게 주어진 것은 과거가 남긴 흔적, 곧 사료뿐이며 역사가는 사료로부터 추론하여 과거에 대해 말한다. 그런데 이 추론이 무엇을 향하는가에 대해 콜링우드와 단토는 서로 다른 답을 내놓았다.

콜링우드는 사건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였다. 사건의 외부란 물체의 운동처럼 기술될 수 있는 측면으로,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넌 일이 이에 해당한다. 사건의 내부란 그 행위를 통해 표현된 사상으로, 공화정의 법에 맞서려 한 카이사르의 생각이 이에 해당한다. 자연 과학자는 사건의 외부만을 다루며 그것을 일반 법칙 아래에 포섭함으로써 설명한다. 그러나 역사가에게 사건은 외부와 내부의 통일이며, 역사가가 사건의 내부를 파악하였다면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물음은 이미 답해진 것이다. 따라서 내부를 갖지 않는 자연 현상은 그 자체로는 역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홍수나 기근이 역사 서술에 등장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이 사고하고 대응해야 했던 상황의 일부를 이루는 한에서이다.

그렇다면 역사가는 사건의 내부를 어떻게 아는가? 콜링우드에게 따르면 역사가는 사료가 전하는 상황 속에서 행위자가 마주했던 문제를 스스로 다시 생각함으로써 그 사상을 자신의 마음 속에 다시 일으키는데, 이를 ‘재연’이라 한다. 재연은 행위자의 감정에 이입하는 것과 다르다. 감정은 그것이 일어난 순간과 함께 흘러가 버리지만, 사상은 시간이 달라져도 같은 것으로 다시 사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클리드의 증명을 오늘날의 학생이 따라갈 때 학생이 생각하는 것은 유클리드가 생각한 것과 같은 사상이다. 그러나 재연은 사료를 수동적으로 옮겨 적는 일이 아니다. 역사가는 재연하는 과정에서 그 사상이 행위자의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따지며, 사료가 전하는 이유를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사고할 수 없다면 오히려 그 사료를 의심한다.

단토는 역사 서술을 이루는 독특한 문장에 주목하였다. 그가 ‘서사 문장’이라 부른 것은 시간상 떨어진 적어도 두 사건을 지시하되 그중 앞선 사건만을 기술하는 문장이다. ‘1618년에 30년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문장은 1618년의 사건을 기술하지만, 1618년의 사람은 이 문장을 참으로 말할 수 없었다. 그 전쟁이 30년 동안 이어지리라는 것은 1648년이 되어서야 확정되기 때문이다. 단토는 이를 보이기 위해 ‘이상적 연대기 작성자’를 상정한다. 그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일어나는 순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기록에는 서사 문장이 없다. 그가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기록하는 순간까지 확정된 것뿐이기 때문이다. 단토는 바로 이 결여된 부분이 역사가가 하는 일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과거의 한 사건에 대한 참인 기술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 계속 늘어나며, 이런 의미에서 과거는 완결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과거의 사건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건을 참되게 기술하는 방식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콜링우드의 재연은 역사가가 행위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단토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가는 행위자가

결코 설 수 없었던 자리, 곧 그 이후를 아는 자리에 서 있다.

㉠그렇다면 이상적 연대기 작성자가 카이사르의 사상까지 완벽하게 기록해 두었다 하더라도 역사가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역사가가 사료에 적힌 것을 넘어선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콜링우드는 행위자의 안쪽으로, 단토는 행위자의 이후로 넘어선다. 재연은 역사 이해에 필요한 부분일 수는 있으나, 역사 서술이 말하는 것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콜링우드는 자연 과학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과 역사가가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았다.
- 콜링우드에 따르면 자연 현상이 역사 서술에 등장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인간이 대응해야 했던 상황을 이루는 경우이다.
- 단토에 따르면 서사 문장은 그것이 기술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는 참으로 진술될 수 없다.
- 단토는 과거 사건에 대한 참인 기술이 늘어난다고 해서 과거 사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콜링우드에 따르면 사상은 그것이 일어난 순간과 함께 흘러가 버리므로, 역사가는 사상을 다시 사고하지 못하고 사료를 통해 추론할 수밖에 없다.

1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상적 연대기 작성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카이사르의 사상은 감정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같은 것으로 다시 사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역사가의 서술에는 카이사르가 행위하던 순간에는 확정될 수 없었던, 이후의 사건과 관련지는 기술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 재연은 사료를 옮겨 적는 일이 아니라 사상이 행위자의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 사건의 내부를 파악하면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물음은 이미 답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한 역사가가 1592년 전쟁 초기에 어느 고을의 수령 A가 성을 버리고 물러난 일을 연구하고 있다. A의 일기에는 “적의 수가 많고 성의 병력은 적으니, 군사를 보존하였다가 뒤에 반격하고자 물러난다.”라고 적혀 있고, 당시 조정의 기록에는 A가 겁을 먹고 달아났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있다. 역사가는 A가 물러나 보존한 병력이 이듬해 그 지역을 되찾은 전투의 주력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A의 퇴각은 이듬해 그 지역을 되찾는 토대를 마련한 일이었다.”라고 서술하였다.

- 콜링우드에 따르면, 역사가가 A의 일기에 적힌 이유를 A가 처한 상황 속에서 다시 사고할 수 있다면, A의 퇴각을 이듬해 그 지역을 되찾는 토대로 기술한 문장도 A의 사상을 재연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겠군.
- 콜링우드에 따르면, 역사가는 A가 군사를 이끌고 성을 떠난

일 자체보다 그 행위에 담긴 A의 생각을 파악해야 A가 왜 물려났는가에 답할 수 있겠군.

- ③ 콜링우드에 따르면, A의 일기에 적힌 이유를 A가 처한 상황에 놓고 다시 사고해 볼 때 그것이 성립할 수 없다면, 역사가는 그 일기의 내용을 의심하게 되겠군.
- ④ 단토에 따르면, 역사가가 서술한 문장은 1592년에 이상적 연대기 작성자가 남긴 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문장이겠군.
- ⑤ 단토에 따르면, 이후 이 지역과 관련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다면 A의 퇴각에 대한 참인 기술은 더 늘어날 수 있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방사성 동위원소의 원자핵은 불안정하여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붕괴하여 다른 원소의 원자핵으로 바뀐다. 이때 붕괴하기 전의 원소를 모원소, 붕괴하여 생긴 원소를 자원소라 한다. 개별 원자핵이 언제 붕괴할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수의 원자핵을 모아 놓으면 일정한 규칙이 나타난다. 단위 시간 동안 붕괴하는 모원소 원자의 수, 곧 붕괴율은 그 시점에 남아 있는 모원소 원자의 수에 비례하는데, 이때의 비례 상수를 붕괴 상수라 한다. 붕괴 상수는 원소마다 고유하며 온도나 압력, 화학적 결합 상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남아 있는 모원소의 양이 절반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 하는데, 반감기는 붕괴 상수에 반비례하며 처음에 모원소가 얼마나 있었는지와는 관계가 없다.

이 규칙을 이용하면 시료가 만들어진 뒤 흐른 시간을 알아낼 수 있다. 시료 속에 남아 있는 모원소와 그로부터 생긴 자원소의 양을 측정하면, 둘을 더한 값이 처음의 모원소 양이 되므로 처음 양 가운데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 수 있다. 가령 자원소의 양이 남은 모원소 양의 3배라면 처음 모원소의 4분의 1이 남은 것이므로, 반감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흐른 것이다. 다만 이 계산은 두 가지를 전제한다. 측정되는 자원소가 모두 시료 안에서 모원소가 붕괴하여 생긴 것, 곧 시간을 재기 시작한 시점에 자원소가 없었어야 하며, 그 이후로 시료가 모원소나 자원소를 외부와 주고받지 않았어야 한다. 이처럼 물질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 놓인 시료를 단련계라 한다. 한편 반감기가 지나치게 짧은 원소는 오래된 시료에서 모원소가 거의 남지 않으므로 측정에 쓰기 어렵다.

㉠칼륨-아르곤 연대 측정법은 칼륨-40이 아르곤-40으로 붕괴하는 현상을 이용한다. 칼륨-40은 일부만 아르곤-40으로 붕괴하고 나머지는 칼슘-40으로 붕괴하므로, 실제 계산에서는 이 비율을 보정한다. 아르곤은 다른 원소와 거의 결합하지 않는 기체여서, 암석이 녹아 있는 동안에는 새로 생겨난 아르곤이 그대로 빠져나가 쌓이지 않는다. 마그마가 식어 광물이 결정화 이룬 뒤에도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아르곤은 결정 격자 사이를 이동하여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나 광물이 일정한 온도 아래로 식으면 아르곤은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고 격자 속에 갇히게 되는데, 이 온도를 **단련 온도**라 한다. 단련 온도는 하나의 값으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아르곤이 거의 다 빠져나가는 온도와 거의 다 갇히는 온도 사이에 일부만 빠져나가는 구간이

있으며 단련 온도는 이 구간을 대표하는 값이다. 광물이 바로 그 온도를 지나는 순간 시료는 단련계가 되고 아르곤이 쌓이기 시작하므로, 이 방법으로 측정되는 나이는 광물이 결정을 이룬 때가 아니라 단련 온도 아래로 식은 때로부터 흐른 시간이다. 단련 온도는 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한편 ㉡우라늄-납 연대 측정법은 우라늄-238이 여러 단계를 거쳐 납-206으로 붕괴하는 현상을 이용하며, 주로 지르콘이라는 광물에 적용된다. 지르콘은 결정을 이룰 때 우라늄은 격자 속에 받아들여지지만 납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르콘 속의 납-206은 결정이 만들어진 뒤 우라늄이 붕괴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방법은 모두 시료가 단련계가 된 이후 쌓인 자원소의 양으로 시간을 잴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에서는 자원소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가 끝남으로써 처음에 자원소가 없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반면, ㉡에서는 자원소가 처음부터 결정에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그 조건이 충족된다. 또한 지르콘에서 납이 갇히는 단련 온도는 지르콘이 결정을 이루는 온도에 견줄 만큼 높다.

땅속 깊은 곳에서 아주 천천히 식은 화강암처럼 식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암석에서는, 같은 암석에서 얻은 연대라도 측정 방법과 광물에 따라 값이 다르게 나온다. 단련 온도가 높은 광물일수록 식어 가는 과정의 이른 시기에 단련계가 되기 때문이다. 이 서로 다른 값은 어느 한쪽이 틀렸다는 증거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각 값이 어떤 온도에서 단련 광물에서 나온 것인지를 따지면 암석이 식어 온 과정을 거꾸로 읽어 내는 단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암석이 한 번 식은 뒤 다시 단련 온도 위로 데워진 적이 없을 때에만 성립한다.

14.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붕괴 상수가 큰 원소일수록 반감기가 짧다.
- ② 같은 원소라면 처음 모원소의 양이 두 배인 시료에서도 반감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 ③ 단련계인 시료에서 모원소의 붕괴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줄어든다.
- ④ 반감기가 매우 긴 원소는 오래된 시료에서 모원소가 거의 남지 않아 연대 측정에 쓰기 어렵다.
- ⑤ 칼륨-아르곤 연대 측정법에서 암석이 녹아 있는 동안 생긴 아르곤은 측정되는 아르곤에 포함되지 않는다.

15. **단련 온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광물이 결정을 이루기 시작하는 온도로, 이 온도에서부터 아르곤이 결정 격자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 ② 이 온도 아래로 식어 아르곤이 쌓인 광물이 이후 이 온도보다 높게 가열되었다가 다시 식으면, 그 광물로 측정한 연대는 처음 식은 때보다 다시 식은 때에 가까운 시점부터 흐른 시간을 나타내게 된다.
- ③ 이 온도가 낮은 광물일수록 마그마가 식어 가는 과정의 이른 시기에 아르곤을 가두기 시작한다.
- ④ 광물의 온도가 이 온도에 이르면 칼륨-40의 붕괴 상수가 커져 아르곤이 빠르게 쌓이기 시작한다.